

# 周時經 『대한국어문법』 異本과 그 成立過程

李賢熙\* · 河崎啓剛\*\*

- 
- |                                     |                                     |
|-------------------------------------|-------------------------------------|
| 1. 서론                               | 4) 제 53장 앞면의 변경 전 내용                |
| 2. 國立中央圖書館本の 서지사항                   | 5. 六堂文庫本の 교정 양상과 周時經의 표기법 발전과정      |
| 1) 형태와 내용의 개관                       | 1) 울너 > 울러                          |
| 2) 성립과정 개관                          | 2) 허여 > 허어                          |
| 3. 六堂文庫本과의 대비                       | 3) 어렵은 > 어려운                        |
| 1) 성립과정과 관련하여                       | 4) 허는 > 허는                          |
| 2) 필사태도 및 필사자와 관련하여                 | 5) 잇스니 > 잇으니                        |
| 3) 六堂文庫本の 단계적 수정과 관련하여              | 6) 서로 > 서로                          |
| (1) A <sup>0</sup> 本 이전의 수정 (수정 I)  | 7) -에서 > -에서                        |
| (2) A <sup>0</sup> 本 이후의 수정 (수정 II) | 8) <六1b ~ 2b>의 특수성과 체계적 교정이 이루어진 시기 |
| 4. 六堂文庫本の 삭제된 내용의 復元                | 6. 결론                               |
| 1) 제 18장 뒷면의 삭제 내용                  |                                     |
| 2) 제 30장 앞면의 변경 전 내용                |                                     |
| 3) 제 32장 뒷면의 변경 전 내용                |                                     |
- 

초록: 周時經의 초기 저작으로 알려진 『대한국어문법』(1906)은 오랫동안 六堂文庫本만이 잘 알려져 있었으며, 國立中央圖書館 소장의 필사본(청구기호: 古316-1)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本稿는 먼저 이를 소개하여 두 가지 異本들의 차이점이나 수정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성립과정을 밝혀, 나아가 『대한국어문법』 자체의 성립과정이나 周時經의 연구상 발전과정 등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정리한다.

國立中央圖書館本은 주시경 이외의 누군가가 六堂文庫本과 같은 판본의 책(A<sup>0</sup>本)을 보면서 베낀 필사본이며, 六堂文庫本 성립과정의 한 단계를 비교적 충실하게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六堂文庫本에서 삭제·수정된 내용을 復元하고 그 내용적 변개에 대하여 고찰하거나, 六堂文庫本에 보이는 수정들을 A<sup>0</sup>版 이전의 수정(수정 I)과 이후의 수정(수정 II)으로 크게 나누어서 단계적 수정양상을 고찰하였다.

또한 國立中央圖書館本의 필사자는, 적어도 필사 시작 시점에서는 단순히 『대한국어문법』의 구체적 내용에 낯설었을뿐더러, 이 책의 “표기법” 자체가 주시경의 많은 고민이 담긴, 주시경 문법의 실천적인 “보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으며, 그만큼 周時經의 한글 및 국어 연구에서 먼 곳에 있었던 ‘일개의 일반 독자’에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필사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나 『대한국어문법』의 집필·출판과 거의 동시대였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에 그렇다면 國立中央圖書館本은 ‘그 당시 사람들의 표기법에 관한 인식’이나 ‘그들과 周時經 사이의 거리감’, ‘『대한국어문법』이 어떻게 읽혔는지’ 등, 『대한국어문법』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서도 큰 가치를 지닐 가능성이 있다. 國立中央圖書館本은 周時經과 『대한국어문법』에 대해, 이처럼 재조명해 주고 있다.

핵심어: 周時經, 大韓國語文法, 異本, 六堂文庫本, 國立中央圖書館本, 성립과정, 수정

## 1. 서론

周時經의 초기 저작인 『대한국어문법』<sup>1)</sup>(1906년)은 油印되어 나온 私刊本이며, 1970년에 六堂文庫本이 발견됨으로써 학계에 소개되었는데, 오랫동안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본이었다. 그런데 언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國立中央圖書館에도 이 책의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는바(청구기호: 古316-1), 이는 현재까지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1) “대한국어문법”이라는 서명은 卷首題(卷頭書名)이다. 外題(表紙書名)는 六堂文庫本에서 “國文講義”, 國立中央圖書館本에서 “國語”로 되어 있어 일치하지 않는다. <六堂本>을 대상으로 하여 그 서명을 “대한국어문법”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잘 반영한 외제에 따라 “國文講義”라 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李基文(1970: 21), 安秉禧(1982/1992: 72), 김병문(2013: 110-114)에서 표명된 바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두 가지 異本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관습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권수제로서 공통되는 “대한국어문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부르고자 한다.

본고는 이 國立中央圖書館本(이하 〈國中本〉)을 六堂文庫本(이하 〈六堂本〉)의 내용과 대비하여 두 가지 異本들 사이의 차이점이나 수정사항 등을 살펴봄으로써, 〈六堂本〉과 〈國中本〉의 관계와 성립과정, 周時經의 연구상 발전과정 등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國立中央圖書館本の 서지사항

### 1) 형태 및 내용 개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에서 소개되어 있는 〈國中本〉 『대한국어문법』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밑줄: 인용자].

표제/책임표시사항	대한국어문법 / 周時經 著
판사항	筆寫本(自筆本)
발행사항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光武10(1906)
형태사항	88張: 19.7 × 17.4 cm
주기사항	表題: 國語 筆寫記: 光武十年(1906)...六月日尙州周時經識

우리는 그 전자 이미지를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rcis/>) 및 “디지털한글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2015년 1월 현재, “디지털한글박물관” 사이트에서는 이 책에 대한 “전문가용 해제”로서 〈六堂本〉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기술 중에 다음과 같이 〈國中本〉을 소개한 부분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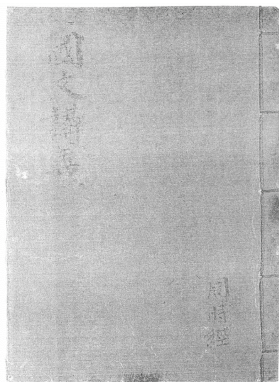
유인본(油印本)의 저본(底本)이 되었던 주시경의 자필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전하고 있다. 표지 서명이 ‘국어(國語)’로 되고 전체 88장인 점이 유인본과 다르나 내용은 대체로 같다. [밑줄: 인용자]

이상의 소개들은 모두 이 〈國中本〉을 주시경 자신에 의한 “自筆本”으로서 소개하고 있으며, “디지털한글박물관”의 해제는 이것이 油印本(〈六堂本〉)의 “저본(底本)”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실 〈國中本〉은 周時經 이외의 누군가가 〈六堂本〉(혹은 그것과 동일한 판본)을 베낀 필사본임이 확실하므로, 이와 같은 소개들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소개되어 있는 “筆寫記”는, 筆寫記가 아니라 〈六堂本〉 卷末에 있는 이른바 跋文을 〈國中本〉 필사자가 그대로 베꼈을 뿐이며, 〈國中本〉이 언제 누구에 의해 筆寫(복사)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筆寫記는 없다.

〈國中本〉의 내용은 〈六堂本〉과 거의 同一하나, 〈六堂本〉 권두에 실려 있는 純漢文으로 된 “略例”는 빠져 있다. 또한 필사과정에서 誤字를 내거나, 誤字를 고치거나, 일부 표기를 바꾸어 버리기도 하였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가 많이 난다. 또한 〈六堂本〉이 기본적으로 每面 10행 16자로 정연하게 조판되어 있음에 비해, 〈國中本〉은 每面 8행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한 행의 글자수는 14~18자 정도로 일정하지 않으므로, 張次 등은 일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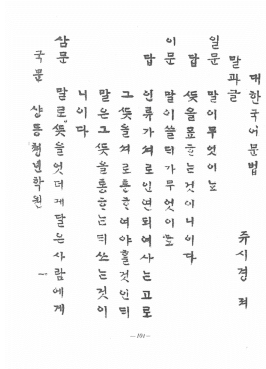
〈六堂本〉과 〈國中本〉의 표지 및 제1장 뒷면의 이미지를 아래에 대비하여 제시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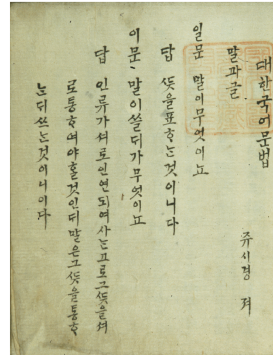
六堂文庫本 표지  
외제: “國文講義”



國立中央圖書館本 표지  
외제: “國語”



六堂文庫本 제1장 뒤  
 권수제: “대한국어문법”  
 판심제: “국문 상동청년학원”



國立中央圖書館本 제1장 뒤  
 권수제: “대한국어문법”  
 판심제: 없음

〈國中本〉의 가장 큰 가치는, 〈六堂本〉 성립과정의 한 단계를 비교적 충실하게 보존하고 있어 『대한국어문법』의 성립과정이나 周時經의 연구상 발전과정 등을 우리에게 다시 새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六堂本〉에서 삭제·수정되어 원래 상태를 알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한 복원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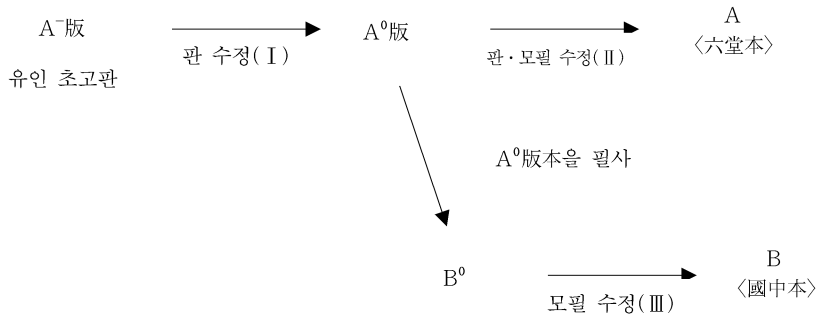
“略例”에도 있듯이 이 책은 周時經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한두 장씩 지어 나누어 주던 것을 나중에 묶은 것이라고 하는바, 형식상 내용 구성 파악이 어려울 수가 있으므로, 이하에 우리가 파악한 내용 구성을 목차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此後 연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책의 조판 등도 참고하면서 최대한 周時經의 意圖를 정확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용어 등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그 본질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오른쪽은 실제로 책에 나오는 章 제목들이며, (( )) 안에 있는 것은 〈六44b〉에 나오는 周時經 자신의 구성설명에서 가져온 말이다. 張次은 〈六堂本〉에 의거하였다.

## 〈표 1〉 『대한국어문법』 내용 구성 파악의 시도

약서 대한국어문법	略例 대한국어문법	
1. 서장	((소리 성질의 대강과 국문 만드신 스적))	1b1
1.1. 말과 글	말과 글	1b2
1.2. 소리(음학)	소리(음학)	8b8
1.3. 사람의 말소리	사람의 말소리	10a2
1.4. 국문을 만드심	국문을 만드심	12b2
2. ·의 음가와 형태음소적 표기		16b4
2.1. 『훈민정음』과 『훈몽자회』	((훈민정음과 훈몽자회를 기록))	16b4
2.2. 연구 내력	((나의 국문을 연구하던 리력))	24b5
2.2.1. 15 세 경인년(1890)		24b5
2.2.2. 본연구의 원점		27b3
2.2.3. 19 세 갑오년(1894) 정월		29b1
2.2.4. 21 세 병신년(1896)		32a1
2.2.5. 27 세 임인년(1902) 정월 14일		32a10
2.2.6. 30 세 을사년(1905) 여름 (현재에 이름)		32b7
2.3. 형태음소적 표기		34b6
2.3.1. 올바른 표기		34b6
2.3.2. 속습의 문제점		38b6
2.3.3. 종성별 어간 일람표		42b1
3. 음운체계	즈모음의 분별 성질	44b8
3.1. 모음	모음	45a9
3.1.1. 「중성」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44b10
3.1.2. 모음 목록		46a5
3.1.3. 방점	점 치는 법	47a6
3.1.4. 모음 체계 개략		48a4
3.1.5. 無音인 초성 ㅇ		48b5
3.2. 자음	즈음	51b3
3.2.1. 『훈민정음』과 『운회』, 『홍무정운』		51b8
3.2.2. △의 음가와 해석		55a6
3.2.3. 『훈몽자회』 『화동정음』 비판		56b1
3.2.4. 자음 목록과 체계		57b3
3.2.4.1. 청음		57b3
3.2.4.2. 탁음(쌍음)		57b10
3.2.4.3. 탁음(ㅎ합음)		58a6
3.2.4.4. ◇		59a7
3.2.4.5. 순지음		60a1
3.2.5. 자음자의 명칭에 대하여		60b9
4. 공시적 음운과정		63b5
4.1. 접변	접변[接變]	63b5
4.1.1. 비음화, 유음화, 조음위치의 수의적 동화		63b9
4.1.2. 종성의 음성적 실현		65a1
4.1.3. 탁음화 1: 쌍음(된소리)화		65b4
4.1.4. 탁음화 2: ㅎ합음화의 不實現		66a10
4.2. 두음법칙 1: ㄹ, ㄴ → ∅	우리 국어에 例習의 無音	67b9
4.3. 두음법칙 2: ㄹ → ㄴ	우리 국어 례습의 ㄹ이 始作한어 발음할 때 ㄴ으로 變하는 것	68a8
발문		

## 2) 성립과정 개관

〈六堂本〉(아래의 A)과 〈國中本〉(아래의 B) 사이의 관계와 성립과정을 개념도로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國中本〉은, 주시경 이외의 누군가(이하 “〈國中本〉 필사자”)가, 〈六堂本〉과 같은 版인 A<sup>0</sup>版을 인쇄한 版本(A<sup>0</sup>本)을 보면서 모필로 복사한 필사본이다.

이 필사자는 毛筆로 A<sup>0</sup>本을 대체로 충실하게 다 베껴 B<sup>0</sup>本을 작성하였는데, 분명한 誤字는 알아서 고치기도 하고, 안 고치기도 하고, 잘못 고치기도 한다. 내용상으로도 표기법상으로도 周時經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베끼고 있기 때문에, A<sup>0</sup>本에서 선명하지 않았던 글자에 대해 엉뚱한 誤字를 내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보이는 대로 엉뚱한 글자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sup>2)</sup> 또한 그는 이 책의 표현매체인 ‘맞춤법’ 자체가, 책의 ‘내용’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을 쓰지 못하였으며, 周時經의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 맞춤법을 편한 대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충실하게 베꼈다고 평가할 만하다.

〈六堂本〉에 보이는 수정들 중에는, A<sup>0</sup>版 이전에 판을 직접 고친 수정과정(I)과 A<sup>0</sup>版 이후에 고친 수정과정(II)이 존재한다. 물론 어느 쪽인지 판단이 어려운

2) 이하 본고에서는 이러한 글자를 “모사자”(模寫字)라 부르기로 하고, 그 성격상 전자 텍스트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므로 필요에 따라 이를 ‘■’로 표시하도록 한다.

것도 있다. 前者(이하 수정Ⅰ)는 모두 周時經 자신에 의한 저작 활동의 일환이며, 後者(이하 수정Ⅱ) 중에는 版을 고친 수정도 있고, 책으로 인출된 후에 毛筆로 고친 수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周時經 자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수정들이 많다.

B<sup>0</sup>本에 대해서도, 나중에 毛筆로 수정된 흔적이 있다(수정Ⅲ). 수정자는 필사자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3. 六堂文庫本과의 대비

본 장에서는 〈六堂本〉과 〈國中本〉을 구체적으로 대비하면서, 제2장에서 정리한 사실들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확인하여 고찰해 보도록 한다.

#### 1) 성립과정과 관련하여

먼저 가장 기초적인 사실로서, 〈國中本〉이 周時經 이외의 누군가가 〈六堂本〉과 같은 版의 책(A<sup>0</sup>本)을 보면서 베낀 필사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필사자가 내용상으로는나 표기법상으로 周時經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베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것은, 〈六堂本〉에서 잘 안 보이거나 수정된 글자에 대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模寫하기만 한 글자, 즉 “모사자”가 간혹 〈國中本〉에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六27b10〉

위

〈國32a1〉

■

〈六55b5〉

뤼

〈國64b6〉

■



예를 들어 “웨 · 즈를 卜즈와 곱이 넓는지”〈六27b〉에 나타난 “웨”[왜]는 약간 字劃이 이어져 判독이 어려워지기는 하였으나, 이 문헌에서는 의문사 ‘왜’는 항상 “웨”로 표기되므로, 이것이 “웨”를 의도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國中本〉 필사자는 이를 전혀 다르게 보아, ‘요’와 ‘ㄷ’을 합한 듯한 기묘한 자형으로 써 버렸다. 또한 ‘弱’字(현대 중국 표준 발음은 ruò)의 중국음으로써 제시된 “꺽”〈六55b〉 역시 마찬가지로, 〈國中本〉에서는 ‘꺽’와 ‘즈’를 합한 듯한 실재하지 않는 이상한 자형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六堂本〉의 “웨”나 “꺽”가 확실히 각각 ‘웨’, ‘꺽’를 의도한 글자이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 다르게 보면 ‘요’+ ‘ㄷ’라든가 ‘꺽’+ ‘즈’처럼 보일 만도 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바로 〈國中本〉이 〈六堂本〉(또는 그와 동일한 판본의 책, A<sup>0</sup>本)을 보면서 베낀 필사본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또한 그 필사자가 주시경 이외의 누군가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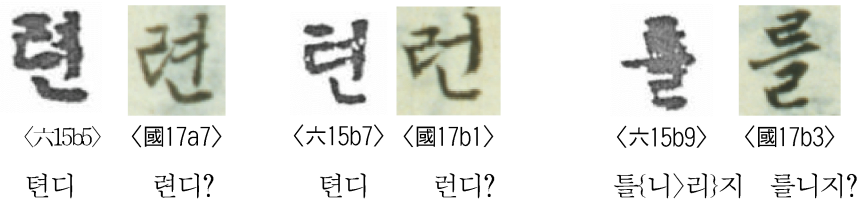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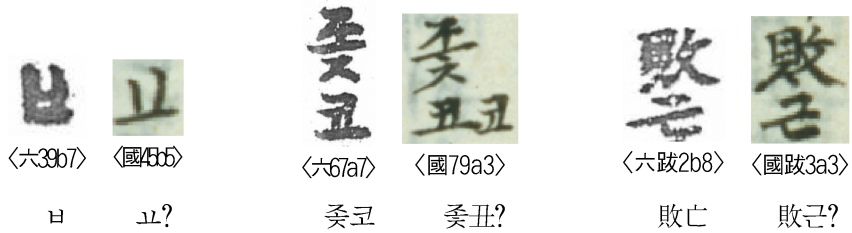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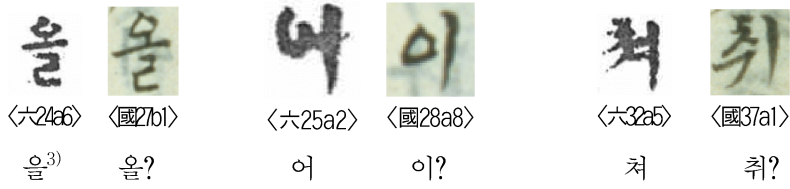
다음 예들도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은 모두 동사 ‘짓’-[作]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여기서는 다 ‘-어’) 앞에서 나타났을 때 예들이다.



이들은 〈六堂本〉에서는 모두 “짓”의 받침 ㅅ을 지우는 표시를 하고 “지”로 수

정한 것들인데,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변격활용의 표기법과 관련한 周時經의 ‘本音의 理論’이 전개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國中本>의 필사자는 이에 대해서도 周時經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수정한 받침 ㅅ을 이상한 “모사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만약에 周時經 자신이 필사했다면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이외에도, <國中本>의 오류들 중 筆寫者의 理解 不足으로 인해 생겼을 것으로 판단되는 예들은 많다. 다음에 “모사자”는 아니지만 역시 <國中本>의 필사자가 잘못 보아서 엉뚱한 자형으로 써 버린 경우들 중의 일부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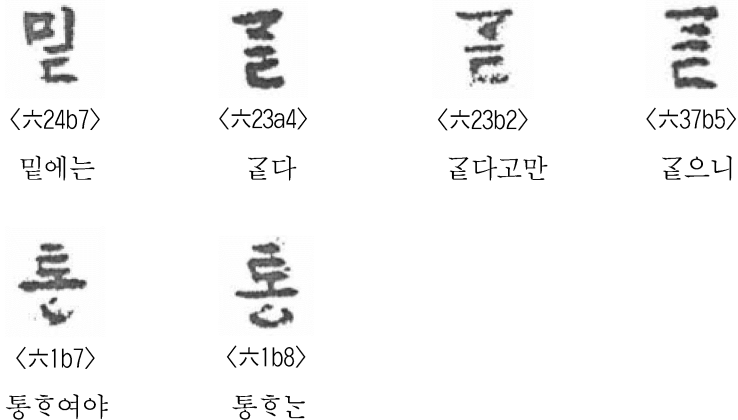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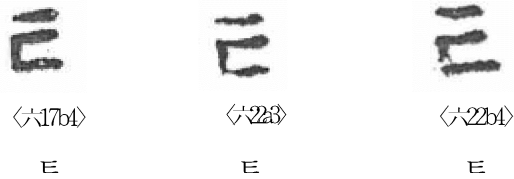
3) 中聲이 ‘고’처럼 보이는 것은 세로획이 아니라 잉크가 번졌을 뿐인데, <國中本>은 보이는 대로 ‘을’로 적었다.

- (1) 가. ㅈㅈ 중성이나 思[不用初聲]을 다 漢음으로 考解한즉 <六24a6>  
 나. 웨 ㄹ느 ㅈ 알에는 ‘와’즈가 쓰이고 <六25a2>  
 다. 國문식 일편을 찬술하기를 시작하여 익년 춘에 대강 맞춰 <六32a5>  
 르. ㅈㅎ의 합음은 ㅈ ㅈ라 <六39b7>  
 마. ㅈ고는 ㅈ연의 음디로 ㅈ코가 될 터인디 우리 國어 ㅈ습디로는 ㅈ고 ㅈ ㅈ  
 고가 되며 <六67a7>  
 바. 그 社會가 ㅈ지 혼자될 수 잇스리요 반듯이 敗ㅈ을 ㅈ치 못홀지라 <六跋  
 2b8>  
 사. ㅈ경각欽敬開을 세우샤 ㅈ디일월의 ㅈ상儀象을 만[들]디시니 그 ㅈ계가 스  
 스로 ㅈ고 스스로 동ㅈ[여]어} ㅈ디일월도슈와 스시절후휴야구각이 호리도  
 ㅈ[니]리}지 안이호고 <六15b5-9>

이와 같은 오류는 수없이 발견되므로, 여기서 일일이 제시하지는 않는다. (1사)의 예들은 초성 ‘ㅈ’을 ‘ㄹ’로 잘못 본 것들인데, 이러한 예는 여기(<六15b5-9>, <國17a7-b3>)에서만 집중적으로 3예가 관찰되며, 나머지 초성 ‘ㅈ’은 모두 ‘ㅈ[通]ㅎ’, ‘ㅈ리인정[天理人情]’, ‘ㅈ어통[傳語筒]’, ‘다토논’, ‘특별이’, ‘알타이 통어’ 등등 다 제대로 필사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ㅈ’이라도 중성 ‘ㅈ’에 대해서는, 특기할 만한 체계적 오류가 발생한다. 먼저 <六堂本>에서 쓰이는 ‘ㅈ’의 글꼴을 확인해 보자. 위에 (1사)에서 제시한 초성의 3예도 함께 참조하기를 바란다.





모두 ‘ㅌ’의 첫 획이 아래 부분과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글꼴 닳도 있어서 <六堂本>의 종성 ‘ㅌ’은 <國中本> 필사자에게는 다 ‘ㄹ’로 보였으며, 그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ㄹ’로 잘못 배꼈다. 원래 終聲 자리에 쓰일 일이 없었던 ㄱㅌ표음 등을 종성 자리에서도 쓰는 것은 周時經이 처음으로 주장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실천이었기 때문에, 이에 익숙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 ‘ㄹ’로 보였다는 것은 이해됨직하다.

<國中本>의 필사자는, 처음에는 모든 終聲 ‘ㅌ’을 다 ‘ㄹ’로만 배끼다가, 어간 ‘꺠-[同]’에 대해서는 “꺠다고만”<六23b2><國26b3> 쯤부터<sup>5)</sup> 이것이 “꺠”이 아니라 “꺠”임을 깨닫게 되어, 그 후에는 모두 제대로 “꺠”으로 표기하게 된다.<sup>6)</sup> 그러나 ‘꺠-’ 이외의 어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밑에[下], ‘-붙어[부터], ‘술[鼎] 등에 대해 계속 “밑에”, “붙어”, “술” 등으로 여전히 모두 ‘ㄹ’로 배긴다.<sup>7)</sup>

4) 이것이 周時經의 특징인지, 당시 흔히 쓰이던 글꼴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추후 더 고찰해 보려고 한다.

5) 이는 『훈민정음』, 『훈몽자회』, 『화동정음』 등을 인용한 직후에 위치한다. 이들(바로 위에 제시한 <六17b4>, <六22a3>, <六22b4> 3 개의 “ㅌ”)을 배끼는 과정에서 <國中本> 필사자는 이 책에서의 ‘ㅌ’의 자형을 충분히 확인하게 되어, 그것이 ‘꺠-[同]’을 인식하게 될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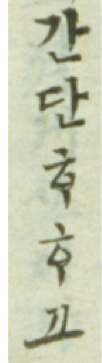
6) 단, 한 번만 “꺠으니”(<六37b5>, <國43a6>)에서 “꺠”로 잘못 적은 것을 “꺠”으로 수정한 부분이 보이기도 한다. 무심코 잘못 썼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친 것일 수도 있다.

7) ‘밑에[下]는 (<六24b8>, <國28a4>), (<六25a7>, <國28b5>) 등을, ‘-붙어[부터]는 (<六32b1>, <國37a8>), (<六33b8>, <國39a2>), (<六34b2>, <國39b8>), ‘술[鼎]은 (<六42b7>, <國49a4>)를 참조. 다만 ㅌ 받침의 예로서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맡-[任]나 “우리말의 ㅌ 종성”(<六43a>, <國49ab>)에서 제시된 예들처럼 명시적으로 ㅌ 받침을 가진 예로서 언급된 예들은, 제대로 ㅌ으로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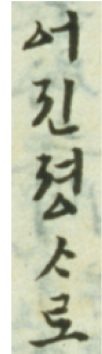
그러다가 “붙이지”(〈六50b7〉, 〈國58b8〉), “前붙어”(〈六59b1〉, 〈國69b1〉)에 가서야 비로소 ‘붙-’(‘붙이-’)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되어, 그 후에는 ‘-붙어’에 대해서는 제대로 ‘ㅌ’으로 베끼게 된다. 이상의 사실은, 〈國中本〉의 필사태도나 필사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볼 수도 있어 흥미롭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國中本〉의 성립과정에 대해 보충해 보도록 한다. 〈六3a10-3b1〉〈國3b2〉의 “말을 만듦이 간단호호고”는 물론 “간단호고”의 잘못인데, 이는 〈六堂本〉에서 쪽이 넘어가면서 ‘호’를 3a 끝과 3b 처음에 두 번 써 버린 실수다. 그런데 〈國中本〉에서는 행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필사하고 있다. 〈國中本〉이 적어도 〈六堂本〉과 같은 組版의 책을 보면서 베낀 필사본이라고 보지 않으면 이 사실을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國中本〉 17a~19a쯤에서는,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한 내용을 베끼면서 갑자기 ‘ㅇ’을 완전히 ‘△’ 모양으로 표기하기 시작하다가[예컨대, “어진 정스로”(〈國17b5〉)를 “서진 정스로”처럼], 『訓民正音』의 내용을 베끼고 나서 다시 제대로 ‘ㅇ’ 모양으로 쓰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訓民正音』의 “ㅇ 喉音 如欲字初發聲 … △ 半齒音 如穰字初發聲”(〈國20a-20b〉)이라는 내용을 베낀 후에도 계속 ‘ㅇ’과 ‘△’을 혼기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필사자가 周時經이 아님은 이로써도 확실하다.



〈國3b2〉



〈國17b5〉

## 2) 필사태도 및 필사자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國中本〉 필사자는 적어도 ‘굴-’, ‘-붙어’에 대해서는 이것이 “굴”이나 “붙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때까지 잘못 베꼈던 것들을 수정하지는 않았다. 이 사실은 〈國中本〉 필사자의 어떤 필사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엉뚱한 오자들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쉽게 피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한 오자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國中本〉은 그 필사자에게 있어서, 개인 학습용 정도의 목적으로 배긴 임시적 복사본이었을 것이며, 결코 남들을 위해 공개하거나 後世에 남기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國中本〉에 언제 누가 배겼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筆寫記가 없다는 사실이나, 〈六堂本〉의 권두에 있었던 純漢文으로 된 “略例”가 〈國中本〉에 빠져 있다는 사실들도, 모두 그러한 필사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될 것이다.

또한 『대한국어문법』은 周時經의 한글 표기법에 대한 혁신적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었음과 동시에, 그 표현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표기법 자체가 그 사상의 구체적 실천을 보여주는 “보기” 역할을 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國中本〉의 필사자는, 당연히 글의 내용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배겼을 텐데, 그 글의 표기법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어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 周時經의 맞춤법을 자기에게 익숙한 표기법으로 고쳐 버린 부분도 간혹 보인다. 다음 예들을 살펴보자.<sup>8)</sup>

- (2) ㄱ. 십오문 말이 사회【에예】 무슨 상관이 잇는뇨 〈六6a3〉|〈國6a8〉  
 ㄴ. 물건이 소리 나기【에예】 〈六9b8〉|〈國10b3〉  
 ㄷ. 칠문 세종대왕피셔 국문을 만【{들}드|들】신 의【에예】 〈六14b4〉|〈國16a4〉  
 ㄹ. 후셰【에예】 잘 깨듯지 못호고 〈六51a8〉|〈國59b3〉  
 ㄹ. 알【기리】 쉽게 〈六3a1〉|〈國3a3〉  
 ㅂ. 나의 이글이 국문 공부호【{는}는|는】 것을 보고 말호【기리】를 〈六26b6〉|〈國30b2〉  
 ㅅ. 알【기리】 어렵지 안이호리로다 〈六44a10〉|〈國51a4〉  
 ㅇ. 말이 달은【죽직】 즈연 사회도 달으고 말이 【길|글<sub>[sic]</sub>]은죽 ... 〈六6a5-6〉|〈國6b1-2〉

8) 본고의 예문 중에서 사용된 “【에예】”와 같은 표시는, “【〈六堂本〉의 내용 | 〈國中本〉의 내용】”임을 의미한다. 즉 〈六堂本〉에서 “에”, 〈國中本〉에서 “예”로 되어 있음을 뜻한다. 또한 “{들}드”와 같은 표시는, “들”이 “드”로 수정된 흔적이 있음을 뜻한다. 이하 본고에서는 필요에 따라 이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스. (이십이문) 말 즘던이 엷[스시]면 엷더호뇨 / (답) 말 즘던이 엷스면 ...  
 <六8a9-10> <國8b8-9a1>

(2ㄱ-ㄴ)에서는 <六堂本>의 조사 ‘-에’를 “예”로, (2ㄹ-ㅅ)에서는 명사형어미 ‘-기’를 “긔”로 바꾸어 버렸다. 그에게는 이러한 ‘변개’는 ‘변개’도 아니고, 어느 쪽이든 별 상관이 없는, 비유하자면 자기에게 익숙한 다른 ‘異體字’를 쓰는 정도의 인식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ㅇ, ㅈ)에서는 <國中本> 필사자의 방언적 특징도 엷볼 수가 있어서 흥미롭다.<sup>9)</sup> 이상의 예들은 모두 산발적일 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는 <六堂本>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國中本> 필사자의 不注意로 인하여 생긴 오류들이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알 수 있듯이 <國中本>의 필사자는 적어도 필사 시점에서 단순히 이 책의 구체적 내용에 낯설었을뿐더러, 이 책의 진정한 의미, 이 책에 담긴 周時經의 사상과 의도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만큼 周時經의 한글 및 국어 연구에서 먼 곳에 있었던 ‘일개의 일반 독자’에 지나지 않았던 듯하다. 필사시기에 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나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한국어문법』이 집필되어 나온 1905~1906년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國中本>은 ‘당시 일반 사람들의 표기법에 관한 인식’이나 ‘그들과 周時經 사이의 거리감’, ‘『대한국어문법』이 어떻게 읽혔는지’ 등, 『대한국어문법』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또 다른 가치가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sup>10)</sup>

9) 즉, <國中本> 필사자는 ㅈ→지, 스→시 전설모음화를 가진 방언화자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 과도한 추측은 삼가야 하나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독자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베낄 정도의 판본이라면, A<sup>0</sup>版本은 편집 작업중인 원고 단계라기보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로 한 번 周時經의 손을 떠난, 그만큼 널리 읽혔던 판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 이 점에 관해서는 제5장에서 논의하듯이 A<sup>0</sup>版本에서는 아직 표기법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기도 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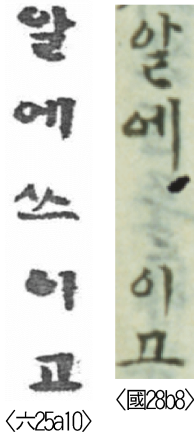
각하기도 힘들다.

이 수정이 A<sup>0</sup>版 이전의 수정(수정 I)에 속함은 확실할 것이다.

(2) A<sup>0</sup>版 이후의 수정 (수정 II)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4) 또 ‘을’ ‘은’ ㅈ는 받침 잇는 ㅈ 알에 쓰이고 ‘를’ ‘는’ ㅈ는 받침 엮는 ㅈ 알에 쓰(는)는) ㅈ 알고 <六25a10>



<六堂本>은 제대로 “쓰이고”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國中本>에서는, “쓰이고”의 “쓰” 자리를 일부러 비워 두었다. 그런데 <六堂本>의 “쓰”는 충분히 선명하며, <國中本>의 필사자가 이와 같은 상태의 “쓰”를 몰라봤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六堂本>의 “쓰” 자를 잘 보면, 毛筆이 아니고 油印版을 직접 깎은 것이기는 하나, 다른 글자들과는 굵기가 달라서, 이것이 나중에 수정되거나 기입된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작업은, 분명히 A<sup>0</sup>本 이후의 수정 (수정 II)임을 알 수가 있다. <六堂本>의 다른 ‘쓰-’[用]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는 이 부분에서만 관찰되는 개별적인 수정사항이며, 이 수정에 어떤 원인·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상과 같이 A<sup>0</sup>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수정(수정 I)과 그 후에 이루어진 수정(수정 II)이 갈라진다는 사실은, 바로 A<sup>0</sup>本을 베낀 <國中本>이 <六堂本> 성립 과정의 어떤 한 순간을 보존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國中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 4. 六堂文庫本の 삭제 내용 復元

〈六堂本〉에는 수정 과정에서 삭제되어, 원래 상태를 알 수 없게 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교적 큰 ‘내용적 변개’는 모두 A<sup>0</sup>版 이후의 수정(수정Ⅱ)에 속해 있어서, 다행히도 모두 〈國中本〉에 잘 보존되어 있어 복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수정들은, 단순히 표기를 고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 주시경의 핵심적 견해의 수정과 발전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로서 매우 흥미롭다고 하겠다.

## 1) 제 18장 뒷면의 삭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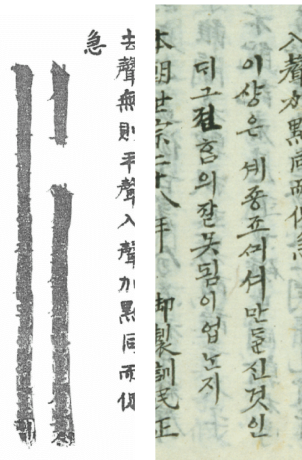
예를 들어, 〈六19a〉에서는 『訓民正音』 본문의 인용이 끝난 후, 다음과 같이 한글로 쓰인 한 구절이 모두 삭제되어 있는데, 〈國中本〉 해당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다.

- (5) 이상은 \_\_세종조씨서 만{들}드신 것인더 그 전함의 잘못됨이 업는지 〈國21b〉

물론 〈國中本〉 필사의 특징상, 여기에 미세한 표기상의 변개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나, 〈六堂本〉의 해당 부분에는 원래 이 내용이 거의 그대로 있었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복원되는 것이다.

- (6) 이상은\_\_세종조씨서만들신것 (“들”이 “드”로 수정되어 있었을까) 인더그전함의잘못됨이업는지 〈六19a9-10(복원)〉

闕字(본고에서는 이러한 空格을 모두 ‘\_\_’로 표시함)의 위치나 글자수, 미세하게 보



〈六19a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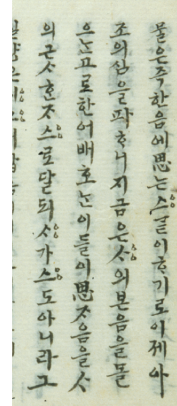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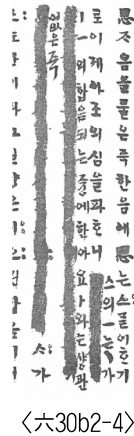
〈國21b4-5〉

이는 자획 등에 관한 정보도 모두 이 복원을 지지해 준다.

내용상으로는 이는 인용한 『訓民正音』 본문의 정확성을 스스로 의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글을 삭제했다는 것은 새로 어떤 자료를 보고 의심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으나,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다.

2) 제 30장 앞면의 변경 전 내용

다음으로, <六30b>의 수정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27b-29a(표1 “본연구의 원점”)에도 쓰여 있듯이 周時經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의 음가를 “丨-의 합음”이라고 믿었었는데, ‘思(스)’자의 중국 발음을 확인하게 된 부분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였다가 다시 쓰고 있다. 그런데 <國中本>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면 다음(7ㄱ)과 같은 내용이 있는바, <六堂本>에 보이는 수정 후 내용은 다음(7ㄴ)과 같다.



- (7) ㄱ. 지금은 ‘스’의 본음을 몰으는 고로 한어 배호는 이들이 思즈 음을 스의 근스흔 즈 ‘스’로 달되 <國35a>
- ㄴ. 스의 一는 ·가 丨-의 합음되는 중에 한아요 卜와는 상관없는즉 <六30b>

즉, <六堂本> 삭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복원되는데, 글자수나 미세하게 남아 있는 자획 등도 모두 이를 지지해 준다.

- (8) 로이제아조의심을파흐니지급은스의  
본음을몰으는고로한어배호는이들이 [두 개 “는”이 모두 “는”으로 수정되었음:  
 인용자]  
思즈음을스의근스흔즈스로달되스가 <六30b2-4(복원)>

또한 여기서 “몰으는 고로”, “배호는 이들”의 어미 ‘-는’의 위치를 잘 보면, 아래

와 같이 중성 ‘ㄴ’의 긴 획의 일부가 남아 있어서, 이들이 모두 삭제되기 전에 “ㄴ”으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六30b3〉

“물으{ㄴ}는”



〈六30b3〉

“배호{ㄴ}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六19a10〉에서 삭제된 “업느지”의 “ㄴ” 부분을 보자.



〈六19a10〉

“업ㄴ지”

〈六30b〉의 두 예들과 비교해 보면, 여기에는 초성과 종성의 두 가지 ‘ㄴ’만 보이며, ‘ㄴ’의 획을 확인할 수는 없다. 즉, 여기서의 {ㄴ}는의 수정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sup>11)</sup>

11) 제5장에서 확인하게 되듯이 어미구조체 ‘-ㄴ’에 대한 {ㄴ}는의 수정은 거의 예외 없이 이루어져서, 기본적으로 〈六堂本〉에 어미구조체 ‘-ㄴ’은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상의 사실은 {ㄴ}는 수정과 이들 두 가지 내용 수정 시기가 서로 교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로운 것이다. 주시경은 어미구조체 ‘-ㄴ’이나 어미 ‘-을’뿐 아니라 조사 ‘-ㄴ’이나 ‘-을’ 등도 ‘-ㄴ’과 ‘-을’로 체계적으로 고친 바 있는데, 그 수정의 시기가 바로 이 1906년 무렵이었다. 1907년에 「必尙自國文言(續)」이 『皇城新聞』(제2446호, 4월 5일자)에 게재되었는 바, 〈正音觀序〉의 내용과 관련하여 ‘-ㄴ’, ‘-을’, ‘-미’, ‘-에서’ 등으로 행한 『황성신문』 편집자의 표기에 불만을 품고 그 뒤에 저술한 『國文研究案』 권2(1907. 11. 30.), 『國語文典音學』(1908. 11. 6.), 稿本 『말』(1908년 전후) 등에서는 다 ‘-ㄴ’, ‘-을’, ‘-매’, ‘-에서’로 고쳤다. 특히 『말』에서는 이미 본문 내에 수록한 바 있는 것을 다시 부록에다가도 필사해 두어 『황성신문』에 게재된 글에 誤字가 많고 자신의 표기법과 달리 고쳐진 부분이 많기

다음으로, 이 내용상의 수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다음은 복원되는 수정전의 문장이다.

- (9) 한어 잘 아는 이에게 思즈 음을 물은즉 한음에 思는 ‘스’글이 ㅎ기로 이제 아조 의심을 파하니, 지금은 ‘스’의 본음을 물으는 고로 한어 배호는 이들이 思즈 음을 스의 근스흔 즈 ‘스’로 달되 ‘스’가 ‘스’도 안이라 그 실상은 ‘시으’의 합음이니 ‘시으’의 합음에서 스을 빼면 丨—의 합음이라 <六30a-30b 복원>

이 글을 보면, 周時經은 처음에 ‘스’처럼 들리는 ‘思’자의 현대 중국음을 듣고,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계속 理論的으로 가정해 왔던 ‘시으’의 합음 그 자체라고 생각하게 된 듯하다.<sup>12)</sup> 그래서 주장하기를 “지금은 우리가 ‘스’자의 본래 소리(‘시으’의 합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그 중국음을 비슷한 소리 ‘스’로 억지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스’도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思’자의 한자음으로서 계속 써 온 ‘스’자야말로 바로 그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었던 것이다.”라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에 복원된, 수정 전의 글이다.

그러나 나중에 아무래도 무리가 있음을 깨닫게 된 周時經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로 중국어 ‘思’(sī) 발음은 역시 ‘스’라고 인정하여 견해를 수정하였는데, 그래도 적어도 思(스)가 ‘丨’ 모음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의 ‘丨—’ 합음설에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으로써 양보한 것이다.

때문에 그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서 본문에 전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록을 따로 두어 다시 필사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이 『황성신문』 게재건과 관련된 사실은 이현희(2014)의 제2장에서 언급된 바 있다.

- 12) ‘思’자의 현대 중국 표준음은 sī [sɿ]이지만, 화자에 따라 捲舌音 shī [ʃɿ]와 잘 구별되지 않는 방언이 북방, 남방을 불문하고 매우 널리 분포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도 잘 인식되어 있다(‘平卷不分’). sī [sɿ]는 한국어 ‘스’와 매우 흡사하며, shī [ʃɿ]는 보통 한국어 화자들이 굳이 한글로 표기한다면 ‘스’로 받아들여지나, sī보다는 子音이 ‘시’[ci~ji]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참고로, 일본어화자에게는 보통 前者는 ‘스/su/’로, 後者は ‘시/si/[ci~ji]’로 받아들여진다). 周時經이 ‘思’자의 중국음을 접하게 되어서, 이를 어떻게든 자기가 계속 가정해 왔던 “‘시으’의 합음”이라고 설명할 수 없을까 하여 궁리했을 것임은 분명하며, 처음에 약간 억지스럽게 “현대 중국어의 ‘思’자 발음이 바로 ‘시으’의 합음 그 자체”라는 주장을 전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10) 한어 잘 아는 이에게 思즈 음을 물은즉 한음에 思는 ‘스’같이 ㅎ기로 이제 아조 의심을 파하니, 스의 一는 ㄱ가 ㄴ의 합음되는 중에 한아요 ㄴ와는 상관없는 즉 ‘스’가 ‘스’도 안이라 그 실상은 ‘시으’의 합음이니 ‘시으’의 합음에서 ㅅ을 빼면 ㄴ의 합음이라 <六30a-30b 수정후>

‘思’자의 중국 발음에 대한 周時經의 입장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前	현대 중국어 思의 발음 = 시으(=스)	⇒ 똑같은 것이다
	옛날 한국어 思의 발음 = 시으(=스)	
	↓양보	
後	현대 중국어 思의 발음 = 스	⇒ 똑같지는 않아도, ‘一’ 모음이 공통된다
	옛날 한국어 思의 발음 = 시으(=스)	

즉, 이 내용상의 변개는 주시경의 입장을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수정 방식도 가장 간결하면서 요점을 잘 잡고 있다. 이와 같은 수정을 周時經 이외의 누군가가 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周時經은 A<sup>0</sup>版本이 널리 사람들에게 읽히게 된 후에도, 계속 연구와 수정을 거듭해 가면서 <六堂本>을 만들어 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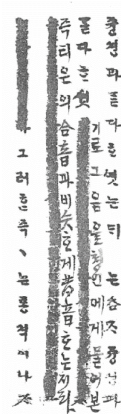
### 3) 제 32장 뒷면의 변경 전 내용

다음으로, <六33a>의 수정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六30b>의 경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츄’자의 중국음에 대한 기술을 수정하고 있다. <國中本>의 해당부분에는 다음 (11ㄱ)과 같은 글이 있고, <六堂本>의 수정 후의 글은 다음 (11ㄴ)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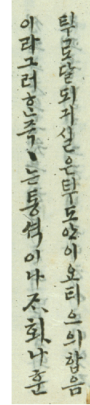
- (11) ㄱ. ㄷ는 ㅈ즈 중성과 같다 ㅎ였스니 근리 한어 학성들이 ㅈ즈 음을 투로 달되 괴실은 투도 안이요 티으의 합음이라 <國38a-38b>  
 ㄴ. ㄷ는 ㅈ즈 중성과 같다 ㅎ섯기로 그 음을 청인에게 물어본즉 티으의 습음과 비슷하게 發音하는 지라 <六33a>

즉, 〈六堂本〉 삭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복원 되는데, 글자수나 미세하게 남아 있는 자획 등도 모두 이를 지지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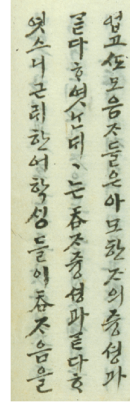
(12) 곧다흐옛스니근리한어학생들이쥬즈  
음을투로달되괴실은투도안이요티으  
의합음이라그러흐죽·는통셔이나즈 회나훈 <六33a(복원)>



<六33a8-10>



<國38b>



<國38a>

다음으로, 이 내용상의 수정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수정 전후의 내용

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이는 “한어학생들”(漢語學校 재학생들)에게서 얻은 중국어 지식에 의거하였던 견해를, “청인”<sup>13)</sup>에게 직접 확인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13) 이 “청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 책에서는 前 한어학교 교사 胡文煒의 이름이 몇 번 언급되고 있지만, 여기의 “청인”은 적어도 胡文煒는 아닌 듯하다. 이 현희(1989: 232)의 각주 (82)에 실려 있는 다음과 같은 글이 참고가 된다[밑줄: 인용자].

당시 관립의국어학교 중 하나인 漢語學校 교사였던 胡文煒를 가리킨다. 호문위가 귀국했으니 새 교사를 찾는다는 기사(『大韓每日申報 대한미일신보』, 1904. 10. 12. 목. 데팔십일호 1면의 잡보)와 호문위가 잠깐 귀국한다더니 5개월간 소식이 없으므로 해고할 터인데 淸公館에 탐문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기사(同 신문 1904. 11. 25. 금. 데일빅구호 4면의 잡보)와 청공관에서 호문위가 귀국 후 병이 나서 죽었다는 가족의 말을 듣고 통보했다는 기사(同 신문 1904. 12. 5. 월. 4면 잡보)를 참조할 때, 주시경 선생이 호문위를 만난 것은 적어도 1904년 7월 이전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한국어문법』이 쓰인 것은 1905년 겨울부터 1906년 6월 사이이며, 또한 周時經이 이 “청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얻은 후에 수정한 내용은 〈國中本〉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이 수정은 A<sup>0</sup>판 이후의 수정(수정Ⅱ)에 속한다. 즉, 이 “청인”을 만난 것도 적어도 1906년 6월 이후라고 보아야 할 터이니, 이는 적어도 胡文煒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정하게 된 것임은 확실하다.

이를 <六30b>에서의 ‘思’자에 관한 수정내용과 대비해 보았을 때, 거기서 말하는 “한어 잘 아는 이”는 여기서 말하는 “한어학성들”일 것이며, 나중에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역시 여기서 말하는 “청인”을 만나 직접 확인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周時經은 처음에는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들에게 中國語에 대해 물어보고 A<sup>0</sup>版本을 집필했었는데, 그 후에 어떤 중국인에게 직접 확인할 기회를 얻어서, <六30b>의 ‘思’, <六33a>의 ‘呑’에 관한 견해를 동시에 수정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의 ‘呑’ 자에 관한 기술은, 수정 전도 수정 후도 정확하지 않은 듯하다. 즉, ‘呑’ 자의 현대 중국 표준 발음은 tūn [tʰuən]인데,<sup>14)</sup> 수정 전의 ‘투’도 수정 후의 ‘티은’도 이를 정확히 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4) 제 53장 앞면의 변경 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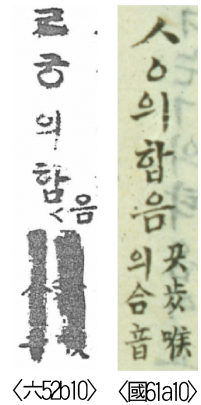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六52b>의 수정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六堂本>의 “ㅅㅇ”을 “ㄹㅎ”으로 고치고 또 어떤 주석 내용을 다 삭제한 흔적이 보이는데, <國中本>을 참조함으로써 수정 전후 상태를 다음과 같이 대비해 볼 수 있다.

(13) ㄱ. 半音으로 ㄹ[半舌]: 올리는 설음이요

△[半齒]: ㅅㅇ의 합음[곳 齒喉의 습음]이니  
라 <六52b10(수정전)>

ㄴ. 半音으로 ㄹ[半舌]: 올리는 설음이요

△[半齒]: ㄹㅎ의 합음이니라 <六52b10(수정후)>



즉, 처음에는 半齒音 ‘△’를 “ㅅㅇ의 합음”으로 설명하였으나, 나중에 “ㄹㅎ의 합

14) 굳이 한글로 표기한다면 ‘투은’이나 ‘튀엔’ 정도가 될 것이다. 또한 『漢語大詞典』에 의하면 ‘呑’자에는 이 이외에도 tiān [tʰien](‘티엔’ 정도)이라는 발음도 있으나, 역시 ‘티은’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음”으로 견해를 바꾸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수정 후 견해는, 바로 직후 <六53b>에 나오는 다음 글과 완전히 모순되어 버린다. 그러한 점에서, 이 수정 작업은 周到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 (14) △는 洪武正韻에 半徵半商이라 함을 이것으로 표했었고 훈민정음에 齒音[商音]이라 했었고 華東正音通釋에 수는 곳 ㄱ우之間音[여기 間音이라 함은 곳 ㅅ음이라]이라 했었스니 ㄱ은 齒音이요 ㅇ은 喉音이라 그런즉 △는 ㄱㅇ[凝의 凍성이라]의 합음이니라 <六53b> [밑줄: 인용자]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 <六55a> “△는~”(제2장 표1 “3.2.2 △의 음가와 해석”) 이후에는, 수정 후의 견해, 즉 △를 ㄱ음의 합음으로 보는 견해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즉,

- (15) △는 訓民正音에 穰字初聲이라 했었으니 穰字初聲은 東音이던지 漢音이 다 ㄱ이라<六55a>

라 하여, 上海 한자음, 중국 표준 한자음, 일본 한자음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 (16) 이를 보면 △는 ㄱ거나 ㄴ거나 {ㄱㅇ}일 터인데 訓民正音에 穰字初聲이라 했었으니 이 셋 中에 ㄱ가 될 듯해도다 또 ㄱ 左에 △를 載했었으니 或 次序 規模로도 ㄱ의 濁音이뇨” “△가 {ㄱ/ㅇ}이면 ㅅ이 全淸이라 함과 같이 △가 淸音이 될는지<六56a>

라 하였고, 또 조금 더 뒤(표1 “3.2.4 자음 목록과 체계”)에서 다시

- (17) △는 訓民正音더로 ㄱ의 탁음이니 곳 ㄱ음의 ㅅ음이라 <六58b>

라 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책을 쓰는 중간에, <六55a> “△는~”을 경계로 周時經 자신의 견해가 크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어 주목된다. 이 책이 周時經이 尙洞靑年

學院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두 장씩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을 합친 것이라는 〈略例〉의 내용을 상기하게 된다.

周時經은 원래 ‘△’를 ㄱㅇ의 합음으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六52b〉에 그것을 明記하였는데, 上海·北京·日本(吳音과 漢音)·韓國의, 너덧 가지 漢字音 체계를 대비적으로 고찰할 기회를 얻은 것을 계기로 견해가 바뀌어 ‘△’를 ‘ㄹㅎ’의 합음으로 보게 된 듯하다.<sup>15)</sup>

그리하여 〈六55a〉 이하의 글은 견해가 바뀌게 되었는데, 〈六52b〉에 대한 수정은 그때 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A<sup>0</sup>본이 성립된 이후에야 뒤늦게 수정하였으나 (수정Ⅱ), 周到하지 못해 〈六53b〉의 글은 그대로 남겨 버린 것이다.

15) 〈六55b〉에 제시된 한자음 대조표를 보면, 예를 들어 日母字 “穰”(물리칠 양(양))에 대해, 중국음 “穰”(현대 표준 발음 rǎng[ʐɑŋ]), 일본음 “료[혹]豊”(吳音 nyō[njo:], 漢音 zyou[jo:])로 되어 있다. 즉, 중국어의 /r/[ʐ]도 일본어의 /z/[dz ~ z]도 공통적으로 “ㄹㅎ”로 표기하고 있어서, 周時經이 이들이 바로 “△”의 정체(= ㄹㅎ)라고 생각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周時經의 『國文研究案』(1907~1908)에 실려 있는 다음 글이 참조가 된다.

…前漢語教師胡文煒에게 ‘穰[벗짚 양(양), 중국음 ráng: 인용자]의音を問은즉 穰字를 讀하면서 一學生 忽여 韓國文으로 記하라 忽매 該生이 ‘량’이라 記하나 ‘량’의 初聲은 ㄹ이니 ㄹ은 半舌音第一位에 載在하였은즉 ㄹ을 二製치 안이하였을지라 近今에 △의 音を 未解하는 故로 漢語를 學習하는 學生들이 穰字音을 ‘량’으로 記하나 穰字音을 支那人이 讀하는 것을 聞하면 바로 單純하게 ‘량’이라 記하지 안코 ‘穰’과 近似하게 記하며[밑줄: 인용자] 正音通釋에 穰字의 音を ‘양’으로 記하였으며 △를 半喉音이라 하였으니 ㄹㅎ의 ㅎ가 宮音인 緣故라. (『周時經全集(上)』, pp. 130-131)

周時經이 중국어의 /r/[ʐ](유성 권설 마찰음)이 단순한 “ㄹ”이 아니라 “ㄹㅎ”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바로 [ʐ]이 마찰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주시경이 △를 “ㄹ의 탁음”(ㄹㅎ의 합음)이라고 견해를 바꾸게 된 것은, 當代 中國語에서 日母字를 /r/[ʐ]로 발음한다는 사실에 강하게 이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 5. 六堂文庫本の 체계적 교정과 周時經의 표기법 발전과정

〈六堂本〉에는 몇 가지 항목에 걸쳐서, 표기법에 대한 체계적 교정이 이루어졌다. 本章에서는 주로 〈六堂本〉을 보고 그러한 체계적 교정을 검토함으로써, 『대한국어문법』의 성립과정, 周時經의 표기법 발전과정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그러한 체계적 교정 중의 대부분은 〈國中本〉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들은 일단은 거의 다 A<sup>0</sup>版 이후의 수정(수정Ⅱ)에 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여기서 소개하는 교정사항들의 대부분은, 周時經이 책의 중간에서 깨달아, 어떤 위치부터 표기원칙을 바꾸게 되는 것들이다. 즉, 모든 글을 다 쓴 후 周時經은 당연히 표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 A<sup>0</sup>版에서는 아직 표기법이 통일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sup>16)</sup>

교정 시기에 관한 문제는 이 이외에도 조금 더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있으므로 개별 사항들을 다 살펴본 후에 5.7절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 1) 올녀 > 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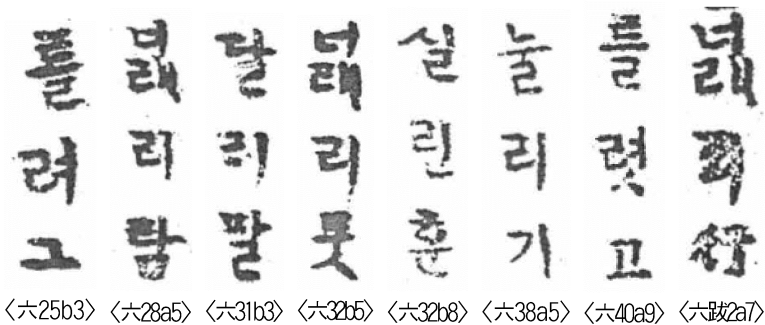
〈六堂本〉에서는, 용언어간 중에 나타나는 /르르/ 연속에 대해, 처음에는 모두 “르ㄴ”으로 표기하였다가<sup>17)</sup> 중간에 원칙을 바꾸어서 “르르”로 표기하도록 하고, 처음에 “르ㄴ”으로 써 버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르르”로 교정하였다. 처음에 “르ㄴ”으로 표기한 것은 〈六16b8〉까지이며, 17a~23a에 『훈민정음』, 『훈몽자회』, 『화동정음』을 인용한 후, 〈六25b〉부터는 표기원칙을 바꾸어 “르르”로 표

16) 본고 제2장에서 추정된 대로 A<sup>0</sup>版이 비교적 널리 읽힌 판본이었다면, 출판하기 전에 체계적인 교정을 행하여 표기법을 통일시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 역시 A<sup>0</sup>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판’이라기보다 ‘미완의 원고’에 가까웠던 것인가, 아니면 〈國中本〉 필사자가 사실은 A<sup>0</sup>版에 이미 일부 되어 있었던 교정들을 못 알아보거나 무시한 것인가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한 결론은 보류해 두고자 한다.

17) 어종의 /르르/ 연속체를 ‘르ㄴ’으로 표기하는 것은 근대한국어 시기부터 널리 행해지던 표기경향이었다.

기하기 시작한다.<sup>18)</sup>

다음에 제시하는 上段의 예들이 처음에 “ㄴ”으로 쓰였다가 {ㄴ}으로 수정된 예들인데, 가장 오른쪽의 〈六16b8〉의 예는 수정이 빠져 버린 것이다. 〈六25b〉 이후에 출현하는, 처음부터 “ㄴ”로 표기된 예들(下段)과 비교하면, “ㄴ”의 자형상의 미묘한 차이가 보일 것이다.<sup>19)</sup>



18) “{소리가 공기를 타고 } 소리는 공기가 울리는 파동이”〈六2a〉에 “울리는”이 있긴 하나, 이는 나중에 수정된 글이므로 여기서 논의대상에 들어갈 수 없다. 참고로 이 부분은 〈國中本〉에서 “소리는 공기가 울니는 파동으로”〈國2a〉로 되어 있어 〈國中本〉 필사자가 〈六堂本〉의 수정 후의 내용을 봤음이 분명하므로, 이 수정은 본고의 기준으로 A<sup>0</sup>판 이전의 수정(수정 I)에 속함이 확실하다.

19) 그리고, 이 上段의 예들에서는 웬지 공통적으로 넓은 공간이 보인다. 이들은 단어 경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바,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수수께끼다.

이들은 〈國中本〉에서는 모두 수정 전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어 주목된다.

- (18) ㄱ. 귀청을 【울{녀}러】울더<sub>[sic]</sub> 〈六2a8〉|〈國2a7〉  
 ㄴ. 【{넙}넙】{니}리〈六3b4〉|〈國3b5〉  
 ㄷ. 그 【지혜를 {넙}넙{니}리】고 | 지혜 넙니고<sub>[sic]</sub> 〈六4b5〉|〈國4b7〉  
 ㄹ. 그 지혜를 【{넙}넙】{니}리〈六4b10〉|〈國5a3〉  
 ㅁ. 지혜를 【{넙}넙】{니}리【{는}】 이 글을 〈六5a4〉|〈國5a7〉  
 ㅂ. 그 중에 【{넙}넙】{니}리 헝【{는}】 말이 〈六7b1〉|〈國7b7〉  
 ㅅ. 남으로 왜구를 【{니}리】치〈六14b6〉|〈國16a6〉  
 ㅇ. 호리도 【{니}리】지<sub>[sic]</sub> 안이 호 〈六15b〉|〈國17b3〉  
 ㅈ. 돌나 쓰임이 무궁 호 〈六16b8〉|〈國18b5〉  
 ㅊ. 【{셔}셔】로 틀 그 법을 〈六25b3〉|〈國29a3〉  
 ㅋ. 깊이 궁구 호 【{넙}넙】리 탐지 호 〈六28a5〉|〈國32a6〉  
 ㄷ. 이 일로 달 말 호 〈六31b3〉|〈國36a5〉  
 ㅌ. 이리【{저}저】리 【{넙}넙】리 못 호 찾나 〈六32b5〉|〈國37b3〉  
 ㅎ. 樂考에 실린 〈六32b8〉|〈國37b7〉  
 ㄱ. 놀기만 호 〈六38a5〉|〈國43b8〉  
 ㄴ. 본즈대로 각 호 쓰는 법 호 틀 〈六40a9〉|〈國46a8〉  
 ㄷ. 중 데일 【{넙}넙】리 호는 것이 〈六跋2a7〉|〈國跋2b1〉

약간 예외적으로 보이는 (18ㄱ)에 주목해 보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六堂本〉의 “려”는 매우 선명하며, 만약에 이러한 상태였다면, 〈國中本〉 필사자가 이를 “더”로 잘못 보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점에 유의하여 〈六堂本〉의 “려”를 잘 보면, “르”의 위쪽 획이 다른 획들과 비교해서 너무 가늘고, 위아래의 크기도 안 맞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이 부분은 A<sup>0</sup>本까지는 “울녀”로 되어 있었고, 〈國中本〉 필사자는 그 “녀”를 잘못 보아서 “더”라고 베긴 것이다.

이 “올더”를 제외한다면, 〈國中本〉에서는 〈六16b8〉의 예까지는 모두 “니”으로, 〈六25b3〉부터는 모두 “르”로 나타나고 있다. 즉, 〈國中本〉 필사자는 이에 관해 아

20) 〈六堂本〉에서는 판을 수정한 결과 글자수가 줄어들어 공백이 생겨 버린 듯한데, 〈國中本〉은 그것들을 의미 있는 공백인 것처럼 충실하게 띄어 쓴 것으로 보인다.

무런 作意도 없이 A<sup>0</sup>本을 충실하게 베낀 것이며, 〈六堂本〉 성립과정의 한 상태를 잘 보존해 준 셈이다.

이 수정은 〈國中本〉 필사자가 보았던 A<sup>0</sup>本에 없었던 수정이기 때문에, 본고의 기준으로 A<sup>0</sup>版 이후의 수정(수정Ⅱ)에 속함이 확실하다.

## 2) ㅎ여 > ㅎ어

〈六堂本〉에는, 예를 들어 처음에 “ㅎ여”, “되여”라고 표기해 놓은 것을 나중에 모두 “ㅎ어”, “되어”처럼 수정하였다. 총 50예 정도의 수정이 관찰되는데, 수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六1b5〉

ㅎ여

〈六1b4〉

되{여}어}

〈六8a5〉

되엇고

〈六14a9〉

ㅎ{엇}엇}느니라

‘여’를 ‘어’로 수정할 때에는, ㄹ의 두 개 가로획 사이의 공백을 가로획으로 메꾸어 버리고 매우 굵은 하나의 가로획처럼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석판인쇄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잉크가 번져 버린 것들과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수정은 바로 周時經의 핵심적 주장인 형태음소적 표기를 철저히려고 한 것일 텐데, 음운론적 정확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같은 형태소는 항상 같게 표기해야겠다는 周時經의 판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수정은,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패턴들을 찾을 수가 있다.

ㅎ여 > ㅎ어, 되여 > 되어, 보내여 > 보내어

ㅎ엇- > ㅎ엇-, 되엇- > 되엇-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어 수정의 분포다. 즉, 이러한 수정이 <六42a>까지만 관찰되며, <六42b> “우리나라에~”(표1 “2.3.3 종성별 어간 일람표”)부터는 아예 처음부터 “ㅎ어”, “되어”처럼 표기하게 되는 것이다. 周時經이 여기서 표기원칙을 바꾸었음을 의미한다.

<六42a>

ㅎ{여}어

<六42b>

ㅎ어

그 위치가 <六42b>부터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사실 <六42a>까지의 내용이 ‘형태음소적 표기’를 주장한 부분이며, 같은 동사어간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아도’, ‘-어도’와 같은 어미들도 항상 같은 모습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그의 핵심적 주장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六42b1> “우리나라에~”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그러한 주장에 대한 마무리로서, 그렇다면 한국어에서 종성에 ㅅ, ㄷ, ㅌ, ㅍ, ㅈ, ㅊ, ㅎ, ㄱ, ㄴ, ㄷ, ㄹ 등을 쓸 것들에는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일람표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周時經은 <六42a>까지의 형태음소적 표기에 관한 견해를 정리하고 나서, 그렇다면 ‘ㅎ여’, ‘되여’도 각각 ‘ㅎ어’ ‘되어’로 쓰는 것이 옳다고 깨닫게 되어, 표기원칙을 바꾼 것이다.

<國中本>에는 이러한 {여}어의 수정들이 다 반영되지 않아 모두 “ㅎ여”, “되여”처럼 나타나니, 이 수정은 A<sup>0</sup>版 이후의 수정(수정Ⅱ)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六42b>(<國48b>) 이후에는 <六堂本>에 나타나는 대로 “ㅎ어”로 나타난다.

### 3) 어렵은 > 어려운

周時經은 형태음소적 표기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은”[어려운], “짓어”[지어], “만들시니”[만드시니]처럼 변격활용이나 ㄹ 말

음 용언어간 등에 대해, 활용상 실제로 발음되지 않는 받침까지 다 원형을 밝히면서 표기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을 바꾸게 되어,<sup>21)</sup> 실제로 발음되지 않는 그러한 자음들을 모두 삭제하였는데, 그러한 예들이 총 50예 정도가 관찰된다.

관찰되는 용언어간은 아래와 같다. ( ) 안의 수자는 용례수를 나타낸다. 소수이지만 체언어간의 예도 관찰된다.

ㅂ 변격활용 용언어간	'돕-'[助](1), '어렵-'[難](1), '쉽-'[易](1) '갓잡-'[近](2)
ㅅ 변격활용 용언어간	'짓-'[作](7)
ㄹ 말음 용언어간	'만들-'[作](13), '알-'[知](5)
래 말음 용언어간	'넓-'[廣](9)
래 말음 체언어간	'여덟 ㄷ'[八字](2)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해당 자음에 삭제 표시로서 斜線(\)을 그음으로써 이루어졌다.<sup>22)</sup>

<六16a4>

{돕}도)은

<六27a2>

어{렵}려)을

<六27a9>

{쉽}쉬)은

<六28b4>

갓{잡}가)은

<六31a2>

여{덟}들) ㄷ

<六31a6>

여{덟}들)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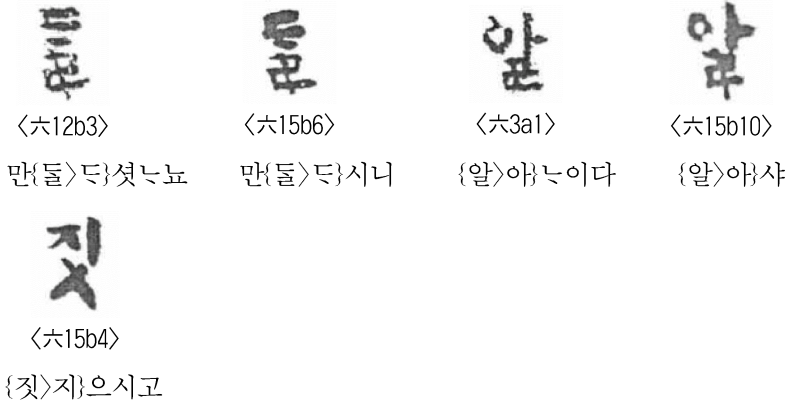
<六28a5>

{덟}널)리

21) 특히 ㄹ말음 용언어간의 경우는 이러한 표기법도 일리가 있으나, ㅂ, ㅅ 변격활용의 경우는 정격활용의 경우와 표기적으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2) ㅂ를 삭제한 예들은, 예를 들어 “어려은”/어려운/, “쉬은”/쉬운/ 등이 된다. 소리나는 대로 “운”이라 표기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은’에 대한 ‘형태음소적 표기’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단, 스을 斜線(\)으로 삭제한 예는 처음에 한 예밖에 관찰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제3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ㄱ’와 같은 曲線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國中本>의 필사자를 혼란시키기도 하였다.



유독 스에 대해서만 ‘ㄱ’와 같은 曲線으로 삭제표시를 하게 된 것은, 아마도 ‘ㄹ’이나 ‘ㅂ’이 垂直線과 水平線으로 구성되어 네모난 글자이기 때문에 斜線(\)으로

삭제하기가 쉬웠던 데 비해, ‘ㅅ’은 두 개의 斜線으로 구성되어 있어, 똑같이 斜線으로 삭제하면 수정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정은 <六57a>까지만 관찰되며, <六57a6> “엇던 子音은~”(표1 “3.2.3 『훈몽자회』 『화동정음』 비판” 속)부터는 아예 처음부터 “어려은”<六57a8>, “쉬은”<六59b8>, “만드느니라”<六66b3>처럼 표기하게 된다.<sup>23)</sup> 즉, <六57a>까지 쓴 후에 周時經이 표기원칙을 바꾸었음을 의미한다.<sup>24)</sup>

<國中本>에서의 반영양상은 다음과 같이 약간 복잡하다.

‘짓-’ 총 7예	반영 (단, 첫째 “【{짓}지 짓】으시고”<六15b4><國17a6>만 예외 <sup>25)</sup> )
‘알-’ 총 5예	반영 (단, 첫째 “【{알}아 알】느이다”<六3a1><國3a3>만 예외)
‘만들-’ 총 13예	반영 4, 미반영 9,
ㅂ계 총 16예	미반영 (단, 예외 “{넓}널 계”<六6a1><國6a7>)

즉, 대체로 말해서 ‘짓-’, ‘알-’의 수정은 <國中本>에 반영되니 이들은 A<sup>0</sup>版 이전의 수정(수정 I)에 속할 것이며, ㅂ계의 수정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A<sup>0</sup>版 이후의 수정(수정 II)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sup>26)</sup>

23) 단, 유일한 예외가 跋文에 나타난다. “그 중 테일 {넓}널| 리 行하는 것이”<六跋2a7>. 이 부분은 바로 뒤에 부자연스러운 공백(여기서는 ‘\_’으로 표시함)이 있는데,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24) “일흠을 {짓}지|지 안이ㅎ엇는디”<六57a3>의 ‘짓-’[作]의 예가 마지막 수정인데, 이는 과도하게 잘못 교정한 것이다.

25) 첫 번째라서, 그리고 ㅅ이 斜線(\)으로 수정되어 있어서, <國中本> 필사자가 수정을 못 알아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26) 이러한 복잡한 수정 양상이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여기서 ㅂ계만 끝까지 ㅂ을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 이유는, 말 그대로 음운론적으로 “삭제”되는 ㅅ, ㅌ과는 달리 ㅂ계는 (/으/를 /우/로 바꾸고 /어/를 /워/로 바꾸어 주는) /w/의 존재를 알려주는 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 4) ㅎ는 &gt; ㅎ는

〈六堂本〉에는, 예를 들어 처음에 “ㅎ는”, “되는”처럼 표기해 놓은 관형사형 어미 ‘-는’을 나중에 모두 “ㅎ는”, “되는”처럼 수정하였다. 총 120예 이상의 수정이 관찰되는바, 수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六3b〉	〈六3b〉	〈六6a9〉	〈六7b1〉
ㅎ{는}는	잇{는}는	가르치{는}는	힝ㅎ{는}는
			
〈六39a10〉	〈六67b2〉	〈六67b4〉	
접속ㅎ{는}는	접ㅎ{는}는	변ㅎ{는}는	

즉, “는”의 ‘·’위에 억지로 ‘一’를 덮어씌움으로써 수정을 행하였다. 여기에 제시한 예들은 ‘·’의 획이 약간 보이거나 ‘一’의 위치, 굵기, 길이 등이 약간 부자연스러움이 확인되어 우리는 이들이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수정은 잘 하면 전혀 못 알아보게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에 제시한 예들처럼 객관적으로 조금이라도 수정한 티가 나면 “{는}는”으로 파악하였지만, 흔적이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일차적으로는 보이는 대로 “는”으로 파악해 두었다. 그러나 그러한 “는”도 대부분은 의심스러운 예들이니, 기본적으로는 모두 처음에는 ‘-는’으로 쓰였다가 나중에 “는”으로 잘 고쳐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단, 마지막의 跋文에서는, 애당초부터 ‘-는’으로 쓰여졌다. 즉, 周時經은 本文을 다 쓴 후, 跋文을 쓰기 전에 이에 대한 표기원칙을 바꾼 것이다.<sup>27)</sup>

27) 조사 ‘-는’에 대해서는 책 전체를 통해서 다 ‘-는’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형사

〈國中本〉에는 수정이 반영되지 않아 모두 “흐는”처럼 나타나니, 이 수정은 A<sup>0</sup>版 이후의 수정(수정Ⅱ)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跋文에는, 〈六堂本〉에 나타나는 대로 “흐는”으로 나타난다.

### 5) 잇스니 > 잇으니

〈六堂本〉에는, 存在詞 ‘잇-’ 및 선어말어미 ‘-엇-’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 처음에는 모두 “잇스니”, “흐섯스니”처럼 ‘스’를 덧붙여서 표기해 놓았는데, 나중에 역시 어미에 대한 형태음소적 표기원칙을 따르게 되어, “잇으니”, “흐섯으니”처럼 수정하게 되었다. 그 수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六6b10〉

잇{스}으면

〈六23a5〉

흐섯{스}으니

〈六28a5〉

잇{슬}을이라

〈六30a9〉

달{엇}습음이니

〈六31a4〉

잇{슬}을 썬

〈六31a8〉

잇{슨}은즉

〈六49a5〉

흐{엿}슨엇은즉

〈六60a7〉

잇{서}어야

즉, ㅅ의 획도 일부 이용하면서 약간 역지로 ㅅ을 덮어쓴 것이다. 이들의 모양을 보면, {ㅅ}의 수정이 아니라 {ㅅ}의 수정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ㅅ보다는 ㅅ처럼 보이게 수정되어 있다는 점이나, ㅅ에

형 어미를 ‘-는’으로 표기함으로써 표기상 잘 구별했었으나, 나중에 그러한 구별을 포기하게 된 셈이다.

비해 ㅅ이 선의 굵기, 크기, 위치 등이 약간 이상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확인될 것이다.

이 수정은 철저하지 못하였다. 跋文을 빼면 총 50개 정도가 되는 대상 중, 40개 정도에 대해서만 수정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10개 정도는 그대로 “ㅅ”으로 남아 있다.<sup>28)</sup>

더군다나 매우 특이한 것은, 跋文에서는 이를 원래대로 “잇스되”, “흐엇스며”처럼 표기하고 있으며, 수정된 흔적도 안 보인다는 점이다. 즉, “잇스니” 식으로 本文을 다 쓴 후에 표기원칙을 바꾸어서 대부분(80% 정도)을 “잇으니” 식으로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跋文을 쓸 때에는 다시 원래대로 “잇스니” 식 표기를 택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사정이 있는 이상은, 본고에서 일률적으로 {ㅅ>ㅇ}의 수정으로 본예들 중에는 사실은 {ㅇ>ㅅ}의 수정이었던 것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극소수(3예)이지만 다음과 같이 처음부터 아예 “잇으니” 식으로 표기된 예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 (19) ㄱ. ㅅㅅ의 합음은 연문이어니와 ㅅㅅ의 합음은 반듯이 잇어얏 터인즉 <六29a6>  
 ㄴ. 이는 ‘ㅅ’의 본음을 닛고 ‘나’로 굵웃 봄이로되 전에는 말을 짚아 ‘며느리’{>라} 셋음인즉 <六28b3>  
 ㄷ. ‘ㅅ’에는 ‘阿’로 달고 ‘ㅅ’에는 군식하게 ‘思[不用初聲]’으로 달앗으리요 <六30a5>

또한 <國中本>에는 수정이 반영되지 않아 (이상의 3예를 빼고) 모두 “잇스니” 식으로 나타나니, 이 수정은 A<sup>0</sup>版 이후의 수정(수정Ⅱ)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跋文에서도 물론 <六堂本>에 나타나는 대로 “잇스니” 식으로 나타난다.

28) “잇스니” <六3a9>, “못 흐{엿}잇{스되}” <六27a7>, “만{들}드{셋스리요}” <六28a4>, “잇슬” <六29a4>, “잇슬” <六29a8>, “잇스리요” <六38b5>, “흐엇슨즉” <六45b6>, “잇스나” <六53a3>, “흐엇스니” <六53b5> 등이 그것이다.

## 6) 서로 〉 서로

『대한국어문법』의 표기법은 ‘형태음소적 표기’라는 측면에서는 진보적이었으나, ‘현대어 음운체계에 의거한 음운론적 표기’라는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었다. 예를 들어 ㅌ와 ㄷ, 구개음화된 ㄷ과 ㅈ, ㅌ·ㅈ 뒤에서의 y 介在 여부 등, 역사적으로 구별되었으나 현대어에서 이미 음운론적 구별을 잃은 것에 대해서도, 특히 한자음을 중심으로 보수적 표기를 유지하려고 하여, 잘못된 표기를 발견하면 수정하였다.

			
〈六2b5〉	〈六6b5〉	〈六9b8〉	〈六14b2〉
{눅}륙문	분{슈}수	{적}덕당	{디}지극
			
〈六15b10〉	〈六23b2〉	〈六58b10〉	〈六59a1〉
{쇼}소장[sic]	{초}초발성	{마}마차	{뿡}뿡자

- (20) ㄱ. [六問]{눅}륙문 〈六2b5〉  
 ㄴ. [分數]분{슈}수더로 〈六6b5〉  
 ㄷ. [適當]{적}덕당호면 〈六9b8〉  
 ㄹ. [至極]{디}지극히 〈六14b2〉  
 ㄴ. [所長]{쇼}소장[sic]을 〈六15b10〉  
 ㅆ. [初發聲]{초}초발성과 〈六23b2〉  
 ㅈ. [馬車]馬車({마}마차)를 連讀호면 {뿡}뿡자와 곁고 〈六58b10-59a1〉

〈國中本〉에서는 (20ㄱ)의 예만 수정 후의 내용(“륙문”)을 반영하고 있는데, 나머

지 (20ㄴ-스)은 모두 수정 전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즉, (20ㄱ)은 A<sup>0</sup>版 이전의 수정(수정 I), 나머지는 모두 A<sup>0</sup>版 이후의 수정(수정 II)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고유어 “서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모두 당시의 일반적 표기법을 따라 “셔로”라고 표기했었는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서로”가 옳음을 깨닫게 되어, 모두 “서로”로 수정하게 된다. 수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앞에서 살펴본 {여>어}의 수정 방식과 똑같다.



<六63b6>까지는 다 {셔}서처럼 수정된 “셔로”가 관찰되는데, “접변[接變]” 내용에 들어간 <六65a6>부터는 처음부터 아예 “서로”로 표기하기 시작한다. 本文의 거의 끝부분이지만, 여기서 周時經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國中本>에는 역시 수정이 반영되지 않아 모두 “셔로”처럼 나타나니, 이 수정은 A<sup>0</sup>版 이후의 수정(수정 II)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六65a6>부터는 <六堂本>에 나타나는 대로 “서로”로 나타난다.

단, <六65a6>부터 “서로”로 표기하기로 한 이후로 跋文 끝까지 총 12예의 {서로}가 나타나는데, 다음 2예의 예외가 보인다.

- (21) ㄱ. 子音의 【{셔}서|셔}】로 접혀어 변혀(訛)는 음을 대강 이만큼 말혀 거니와 <六67b4>|<國79b1>
- ㄴ. 四千餘年 開國訢 二千萬衆 社會의 言語를 入口로 【{셔}서|셔}】로 傳혀던 것도 심히 붓그럽거든 <六跋4b6>|<國跋5a6>



이들은 새로운 원칙에 周時經 스스로도 익숙하지 않아 잘 따르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잘못 쓰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쳤을 <六跋4b6>

가능성도 있다(수정 I). 따라서 (21ㄱ)처럼 〈國中本〉에서도 수정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21ㄴ)의 경우는 〈六堂本〉의 跋文이 전체적으로 글씨도 작고 잉크가 많이 번져 있어서 극히 판독이 어려웠던 관계로, 수정을 못 알아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7) -에서 > -에서

〈六堂本〉에는 보조사(조사·어미의 일부) ‘-서’에 대해, 처음에는 “-에서”, “-씩서”, “-아/어서”처럼 썼다가, 나중에 표기원칙을 바꾸게 돼서 각각 “-에서”, “-씩서”, “-아/어서”처럼 수정하였다. 수정방식은, 이상에서 살펴본 {여>어}나 ‘셔료’의 {셔>서}의 방식과 똑같다.

표기원칙을 바꾸게 된 위치는 〈六23a〉[(22ㄱ)]부터이니, 그 전후의 {-서}의 용례들을 〈六堂本〉〈國中本〉 대비 텍스트로 제시한다.

- (22) ㄱ. 오문 세종대왕의【셔>서>셔】 국문을 만【{들>드}>{들}】실 제에 〈六14a5〉〈國15b5〉
- ㄴ. 룩문 세종대왕의【셔>서>셔】 엇더히신 님군이시뇨 〈六14a10〉〈國16a1〉
- ㄷ. 칠문 세종대왕의셔 국문을 만【{들>드}>{들}】신 외【에>예】 〈六14b3〉〈國16a4〉
- ㄹ. 【{[■■■■·■■■■]>∅} | 이상은\_\_세종조셔셔 만{들>드}신 것인디...】 〈六19a9〉〈國21b4〉
- ㅁ. 우에\_\_세종【{>대왕}>∅】의【셔>서】 친제히신 〈六23a1〉〈國26a1〉
- ㅂ. \_\_세종【{>대왕}>∅】의【셔>서】는 턴연히 음디로 〈六23b8〉〈國27a1〉
- ㅅ. 우리나라에서도 국어를 숭상하【{여>어}>여】 〈六27a8〉〈國31a6〉
- ㅇ. 【‘시으’시으】의 합【{>음>음}】에서 스을 빼면 〈六30b6〉〈國35a5〉
- ㅈ. 이는 속에서도 이러케 씀이 옳은 줄 아느니 〈六35a6〉〈國40b5〉

적어도 (22ㄷ)까지는 처음에 “셔”로 표기하였으나,<sup>29)</sup> 『訓民正音』, 『訓蒙字會』, 『華東正音』 내용을 다 인용한 후 (22ㄱ)부터는 처음부터 아예 “-서”로 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29) (22ㄷ)에서는 수정이 빠져버린 모양이며, (22ㄹ)은 삭제 전 상태를 알 수가 없다.



〈國中本〉에서는 이러한 수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니, 이 수정은 A<sup>0</sup>版 이후의 수정(수정Ⅱ)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六堂本〉에서 표기원칙이 바뀐 후에는, 처음 두 번은 〈六堂本〉에서 “-서”로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응하지 못해 계속 “-셔”로 표기해 버리지만, (22사)부터는 제대로 〈六堂本〉에 나타나는 대로 “-서”로 표기하였다.

단, “-서”로 쓰도록 표기원칙을 바꾼 후에도 周時經 스스로가 익숙하지 않았던 듯하여, 〈六23a〉 이후의 총 52개의 {-셔}의 용례 중, 아래 7에는 “-셔”로 써 버려 나중에 교정되어 있다. 이들은 〈國中本〉에서 모두 “셔”로 나타난다.

(23) ‘씻’-[洗], ‘믿’-[信], ‘맡’-[任], … 등에 대한 활용표를 제시한 직후 (표1 “2.3.1 올바른 표기”)

ㄱ. 속애【{-셔}셔|-셔】【끓웃그릇】 씌이 〈六37b4〉|〈國43a6〉

ㄴ. 이는 다 속애【{-셔}셔|-셔】 슌드트포스츰의 등 즈를 〈六37b6〉|〈國43a7〉

ㄷ. 웃즈 쯡성을 알엿즈 초성으로 옴겨【{-셔}셔|-셔】 〈六39a1〉|〈國44b8〉

(24) “모음” 부분이 시작하면서 (표1 “3.1 모음”)

ㄱ. 모음을 우리나라에 【{-셔}셔|-셔】 전에 중성이라 하니 〈六45a10〉|〈國52a7〉

ㄴ. 가령 “간”이라 하면 ㅏ가 ㅑ니 가온디 【{-셔}셔|-셔】 소리가 나니 〈六45b2〉|〈國52b1〉

ㄷ. 모음의 분별이 대단이 만아【{-셔}셔|-셔】 〈六48a4〉|〈國55b5〉

ㄹ. 성왕뜨【{-셔}셔|-셔】는 이 곶이 즈본(字本)을 만들어 주섯겨늘 〈六51a7〉|〈國59b2〉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정이 단순히 “실제소리가 /셔/로 난다”는 音韻論的 기준에만 의거한 것이 아니고, 어떤 단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語彙的 검토를 거친 수정이라는 사실이다. 같은 {-셔}의 수정이더라도, ‘셔’의 경우와 ‘-셔’의 경우에 이처럼 확연한 분포적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래와 같이 ‘셔’로 표기할 漢字語는 결코 ‘셔’로 수정될 일이 없었음을 확인해 둔다.

- (25) ㄱ. 하나는 {세미지크}세미틱} 통어나 아세아 서편 말 종류니이다 <六7b9> [西便]  
 ㄴ. 전에 라던국과 셔반아와 불란서 말이 교제간에 통용되었고 <六8a4> [西班牙][佛蘭西]  
 ㄷ. 명나라와 몽고와 셔쟝과 만주와 셔라와 안남과 일본과 류구와 <六13b9-10> [西藏][涉羅]  
 ㄹ. 운서韻書와 오례의五禮儀와 스셔오경음희四書五經音解와 칠정편七政篇과 모든 력서曆書와 <六15a10-15b3>  
 ㄱ. 경서언희와 여러 달은 각각 셔칙들과 <六25b4-5> [經書][書冊]  
 ㄴ. 진서 업스면 언문은 쓸 디 업고 <六26b8> [眞書]  
 ㄷ. 이 열한 모임의 성질과 츄셔 규모를 궁구<sub>히</sub>{여}어 본즉 <六28b7-8> [性質][次序]  
 ㄹ. 국문{〇}에 관계되는 셔적들을 적지 안케 궁구<sub>여</sub> 보앗{스}으니 <六31b4> [書籍]  
 ㅈ. 츄셔됨과 보부족됨을 귀이 녀임이 <六60b6> [就緒]

#### 8) <六1b ~ 3a>의 특수성과 수정이 이루어진 시기

이상 제5장에서는 7항목에 걸쳐서 周時經의 많은 고민이 담긴 체계적인 표기법 교정양상을 살펴보았다. 각 항목에 대하여 <國中本>으로의 반영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수정이 이루어진 시기를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기원칙의 전환점

##### A<sup>0</sup>版 이전의 수정(수정 I)

- 짓어 > 지어      '짓-'[作]      <六57a>  
 알샤 > 아샤      '알-'[知]      <六57a>  
 {소리가 공기를 타고} > 소리는 공기가 울리는 파동이} <六2a>  
 {늑}륙}문[六問] <六2b5> (한자음 중의 예외)

##### A<sup>0</sup>版 이후의 수정(수정 II)

- 울녀 > 울려      (용언어간 중의 /르르/ 연속)      <六25b>  
 햅여 > 햅어      (전설모음 뒤에 접속하는 어미 '-어', '-엇-')      <六42b>  
 어렵은 > 어려운      (ㄹ 변격활용, ㄹ 말음 어간)      <六57a>  
 햅논 > 햅는      (관형사형 어미 '-는')      跋文

잇스니 > 잇으니	(‘잇-’, ‘-잇-’ 뒤에 접속하는 모음어미)	(跋文)
서로 > 서로	‘서로’	<六65a>
-에서 > -에서	[보조사(조사·어미의 일부) ‘-서’]	<六23a>
분{슈}수{分數}	<六6b5>, {적}덕{당[適當]} <六9b8>, ... (한자음)	

이를 보면, 체계적인 교정은 대부분이 A<sup>0</sup>版 이후의 수정(수정Ⅱ)에 속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 교정은 모두 周時經이 표기원칙을 바꾸었을 때(‘전환점’)에, 그때그때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한꺼번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이 ‘수정Ⅱ’들에는, 특기할 만한 분포적 특징이 있다. 즉,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六1b-3a>(처음부터 “팔문”까지)에서는, ‘수정Ⅱ’에 속하는 교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양이 그리 많지 않으니, 아래에 <六堂本>의 해당 부분 전체를 제시하도록 한다.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에 밑줄을 치고, 교정이 이루어지거나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는 破線 밑줄을 치도록 한다. <1b>, <2a> 등은 쪽이 바뀌는 위치를 가리킨다.

(26)

<1b>	일문	말이 무엇이뇨
답	뜻을 <u>표호</u> 는 것이니이다	
이문	말이 쓸 디가 무엇이뇨	
답	인류가 서로 인연 되{여}어{어} 사는 고로 그 뜻을 서로 <u>통호</u> 여야 할 것 인디 말은 그 뜻을 <u>통호</u> 는 디 <u>쓰</u> 는 것이니이다	
삼문	말로 뜻을 엇더케 달은 사람에게 <2a> <u>통호</u> 는뇨	
답	말은 곳 뜻을 <u>구별호</u> 여 <u>표호</u> 는 소리니 그 소리로 달은 사람에게 <u>전호</u> 는이다	
스문	이 소리를 저 사람이 엇더케 알 수 잇는뇨	
답	{소리가 공기를 타고}소리는 공기가 <u>올리</u> 는 파동이; 퍼져 <u>나가</u> 서 저 사람 귀청을 울려 <u>들</u> 는 경락으로 들어가면 신이 깨닫고 <u>안</u> 는니. 전어 통으로 <u>비교호</u> 여 볼 만호니 <2b> 이다	

오문      말을 또 무슨 달은 것으로 남에게 통홀 수 잇느뇨  
 답        글로 통홀 수 잇느이다

{늑}륙문    글은 무엇이뇨  
 답        글은 말을 표호는 그림이니이다

칠문      글로 말을 달은 스릅에게 엇더케 통홀 수 잇느뇨  
 답        글은 표니 이 표를 남에게 들어내어 그 눈에 빗최어 보는 경락으로  
 <3a> 들어가면 신이 깨듯고 {알}아느이다  
 그런 고로 글로 쫓을 통호나 소리로 쫓을 통호나 다 일반이니  
 글은 눈으로 듯는 말이라 홀 만호고 말은 귀로 보는 글이라 홀 만호  
 니이다

팔문      지금 류성괴로 말을 답아 언제던지 어더던지 전호고 또 전어통도 잇  
 스니 {꺄?>꺄}은 쓸 더가 무엇이뇨

------(여기까지)-----

답        쫓을 덩호{여>{어} } 말을 만들이 간단호 <3b> 호 [sic]고 알기 쉽게 호  
 {는>{는} } 법이 잇고 남이 말쫓을 잘 알아보는 법이 잇{는>{는} }디 ...

이상의 교정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정이 빠진 것	{ <u>는</u> >{ <u>는</u> } } 표호는, 사는, 통호는, 쓰는, 표호는, 듯는, 표호는, 보는, 듯는, 보는 { <u>여</u> >{ <u>어</u> } } 통호여야, 구별호여, 비교호여 { <u>셔</u> >{ <u>서</u> } } 서로, 서로 { <u>셔</u> >{ <u>서</u> } } 나가셔 { <u>스</u> >{ <u>으</u> } } 잇스니
교정된 것	되{ <u>여</u> >{ <u>어</u> }}, { <u>늑</u> } <u>륙</u> 문(수정 I), { <u>알</u> } <u>아</u> 느이다(수정 I)
처음부터 수정 후 어형인 것	올리는(*올니는), <sup>30)</sup> 아느니(*알느니), 들어내어(*들어내어), 빗최어(*빗최어)

기본적으로 거의 빠짐없이 이루어지던 ‘수정Ⅱ’의 교정들이, 여기서는 거의 다  
 빠져 있음이 확인될 것이다. 예외는 “되{여>{어}”〈六1b6〉 하나뿐이다. 어떤 이유가

30) 이는 나중에 변경된 글(수정 I)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정 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심할 것도 아니다.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대규모로 교정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해당 부분만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은 교정들은, 그만큼 한 번의 대규모 교정 작업으로서 서로 묶인다는 사실이다. 즉, 이러한 교정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한층 더 강조해 주는 것이다.

## 6. 결론

周時經의 초기 저작인 『대한국어문법』(1906)은 오랫동안 六堂文庫本만 알려져 있었다. 그에 비하여, 國立中央圖書館 소장의 필사본은 학계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本稿는 이 두 가지 異本들의 차이점이나 수정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성립과정을 밝혀, 나아가 『대한국어문법』 자체의 성립과정이나 周時經의 연구상 발전과정 등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정리하였다.

國立中央圖書館本은, 주시경 이외의 누군가가 六堂文庫本과 같은 판본의 책(A<sup>0</sup>本)을 보면서 베낀 필사본이며, 六堂文庫本 성립과정의 한 단계를 비교적 충실하게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를 이용하여 六堂文庫本에서 삭제·수정된 내용을 復元하고 그 내용적 변개에 대하여 고찰하거나, 六堂文庫本에 보이는 수정들을 A<sup>0</sup>版 이전의 수정(수정 I)과 이후의 수정(수정 II)으로 크게 나누어서 단계적 수정양상을 고찰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3장 제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國立中央圖書館本의 필사자는 적어도 필사 시점에서는 단순히 『대한국어문법』의 구체적 내용에 낯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진정한 의미, 이 책에 담긴 周時經의 사상과 의도 등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만큼 周時經의 한글 및 국어 연구에서 먼 곳에 있었던 ‘일개의 일반 독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필사시기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나 『대한국어문법』의 집필·출판과 거의 동시대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그렇다면 國

立中央圖書館本은 ‘그 당시 사람들의 표기법에 관한 인식’이나 ‘그들과 周時經 사이의 거리감’, ‘『대한국어문법』이 어떻게 읽혔는지’ 등, 『대한국어문법』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자료로서도 가치를 지닐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國立中央圖書館本이 周時經과 『대한국어문법』을 이처럼 새롭게 재조명하게 해 주는 일정한 가치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논문투고일(2015. 4. 30), 심사일(2015. 5. 20), 게재확정일(2015. 6. 1)

## 참고문헌

- 高永根 編, 1985 『國語學研究史: 흐름과 動向』, 學研社.
- 김두식, 2008 『한글 글꼴의 역사』, 시간의물레.
- 金敏洙, 1977 「주시경 저 대한국어문법 해제」, 『亞細亞研究』 20.1. [1977/1986 『周時經研究(증보판)』에 재수록]
- \_\_\_\_\_, 1977/1986 『周時經研究(증보판)』, 塔出版社.
- 金敏洙 編, 1992 『周時經 全書』, 塔出版社.
- 김병문, 2013 『언어적 근대의 기획: 주시경과 그의 시대』, 소명출판.
- 박병천, 2014 『한글서체학연구』, 사회평론.
- 박태권, 1978 「주시경 지은 ‘대한국어문법’의 국어학사적 위치」, 『눈피 허응박사 환갑 기념논문집』, 과학사.
- 송철의, 2010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安秉禧, 1982 「국어사 자료의 書名과 卷冊에 대하여」, 『冠嶽語文研究』 7. [1992 『國語史 資料 研究』에 재수록]
- \_\_\_\_\_, 1992 『國語史 資料 研究』, 文學과知性社.
- 李基文, 1970 『開化期の 國文研究』, 韓國文化研究叢書 1, 韓國文化研究所.
- 李基文 編, 1976 『周時經 全集(上,下)』, 亞細亞文化社.
- 李賢熙, 1989 「주시경 「대한국어문법」 譯註」, 『周時經學報』 3.
- \_\_\_\_\_, 2014 「주시경의 <訓民正音 世宗序> 해석과 그 계승」, 사단법인 훈민정음학회 창립이사장 이기남 박사 80회생신기념 강연회.

## 日語抄録

## 周時経の『大韓國語文法』の異本とその成立過程

李賢熙・河崎啓剛

周時経の初期の著作である『大韓國語文法』(1906)は、これまで六堂文庫本のみが廣く知られ、國立中央圖書館所藏の筆寫本(請求記号:古316-1)についてはあまり注目されて來なかつた。本稿はまずこれを紹介し、二種の異本間の相違点や修正様相などを調査することによりこれらの成立過程を明らかにすると共に、『大韓國語文法』そのものの成立過程や周時経の文法研究の發展過程などに關する重要な事實を整理する。

結論から言えば、國立中央圖書館本は周時経以外の誰かが六堂文庫本と同じ版の本(A<sup>0</sup>本)をもとに書き寫した筆寫本であり、六堂文庫本の成立過程の一段階を比較的忠實に保存しているという点で非常に大きな価値を帯びている。我々はこれを利用し、六堂文庫本において削除・修正された内容を復元しその内容の改変について考察したり、あるいは六堂文庫本に見られる修正をA<sup>0</sup>版以前の修正(修正I)と以後の修正(修正II)に大きく分け、段階的な修正についても考察する。

また、國立中央圖書館本の筆寫者は、少なくとも筆寫開始時点では單に『大韓國語文法』の具体的内容についてよく知らなかつただけでなく、この本の「表記法」そのものが、悩みぬかれた周時経文法の實踐的な「サンプル」として重要な意味をもつという側面についてはあまり理解していなかつたようであり、彼はそれだけ周時経のハングル研究からは遠い所にいた「一介の一般讀者」に過ぎない人物であつたと推定される。筆寫時期については、決定的な証據はないがおそらく『大韓國語文法』の執筆・出版とほぼ同時代だつたものとみられ、もしそうならこの國立中央圖書館本は「当時の人々の表記法に關する認識」や「彼らと周時経の間の距離感」、「『大韓國語文法』がどのように讀まれたのか」など、『大韓國語文法』の時代的背景を見せてくれる資料とし

でも大きな価値を持つ可能性がある。国立中央図書館本は、周時経と『大韓國語文法』にこうして再び光をあててくれるものである。

キーワード: 周時経, 大韓國語文法, 異本, 六堂文庫本, 国立中央図書館本, 成立過程, 修正